

멀고도 먼 우루무치

이번 답사는 타클라마칸을 종단하는 것이 목표이다. 2년 전 실크로드를 답사하면서 그 가장자리에서(사실은 확인할 수도 없지만,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저 건너가 타클라마칸이야!' 하는 정도로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곳은 타클라마칸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런 타클라마칸을 종단한다는 생각에 다른 어떤 생각도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출발 이틀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암초가 등장하였다. 다른 아닌 우루무치에서의 시위 소식이었다. 사실, 시위야 끊이지 않는 곳이 서울 아니던가? 문제는 15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일행을 주춤거리게 한 모양이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니, 급기야 출발을 앞둔 깊은 밤에 신장지역이 여행제한지역으로 격상되었으며, 외국 기자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끼리 떠나는 답사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지만, 여러 팀이 모이다 보니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일단, 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일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처음 만난 일행의 첫마디가 '우리 가도 되요?'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럼요.' 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답사 참가 예정자 중 3명이 포기하였다. 모두 지리 전공자이거나 그 가족이었다. 분명 아랍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우루무치에서의 시위는 다를 텐데.

그리는 사이 시간이 촉박하게 흘렀다. 급하게 수속을 마치고 북경행 항공기에 올랐다. 이번 코스에서는 북경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 이륙하는 비행기 속에서의 마음은 딱 한 가지, 현재의 모습 이대로 모든 일행이 건강하게 돌아와 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신종 플루를 걱정하느라 해열제만 잔뜩 준비한 상황이었다. 북경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도착하였다. 북경은 그리 먼 곳도 아니다. 가볍게 햄버거로 점심을 때운 일행은 우루무치행 비행기를 준비하였다.

우루무치는 멀기도 하였다. 보완수속이 얼마나 심한지 가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 실감하게 하였다. 국제선 보안 수속보다 더 엄격하였다. 급하게 탑승한 비행기는 마음을 더욱 줄이게 하였다. 비행기 속에 사

람을 가두어 놓고 두 시간 가까이였다. 겨우 비행기가 움직이나 했더니 활주로를 바로 앞에 두고 멈추었다. 심장이 뛰었다. 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정말 여기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신장지구로 못 들어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사진 1. 북경 공항

등등. 많은 생각이 머리를 떠돌았다. 나는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우루무치 사태 때문이라고만 믿었다.

애간장을 다 녹인 후 비행기가 이륙하였다. 이륙 후에도 급하게 선회를 하는 것이 마치 다시 북경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하게 하였다. 그러는 사이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접어든 느낌이였다.

이제 가는구나! 깊은 내륙으로 접어드니 온통 황무지뿐이다. 저게 고비사막이구나! 고비사막은 중국의 북부에서 몽골고원으로 이어지는 사막으로 동서의 폭이 1,600km, 남북 800여 km에 이른다(후에 기술하지만, 우리 가이드는 고비사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못 마땅하게 여겼다).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막의 모래 언덕이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였는지, 그래서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 알 것 같다. 북경에서 자그마치 5시간을 비행한 끝에 우루무치 하늘에 이르렀다. 우루무치의 하늘은 그저 평화롭기만 하였다. 저 하늘 아래서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다니! 뭐 800여 명이 죽었다는 등의 소식이 사실인가!

우루무치 공항도 역시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2년 전 답사 때와 전혀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었다. 저 평화로움 속에서 사살극이 벌어지고 있다니! 우리 일행은 우루무치에 들르지 않기로 하였다. 우루무치가 무서워서(?) 그냥 버스를 타고 다음 예정 도시인 투루판으로 직행하였다. 우루무치는 날씨가 전선하였다. 오후에 소나기가



사진 2. 비행기에서 본 고비사막

퍼부었기 때문이란단. 그 소나기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늦어진 것이였다. 우루무치에서 만난 가이드는 2년 전에 같이하였던 송광수씨였다.

고속도로를 달려 투루판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의 풍력 발전소도 2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숫자가 더 늘었다는 것을 빼고는). 그렇지만 도시를 빠져나가는 도로의 곳곳에는 군인들이 차를 세워 검문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로 들어오는 차와 위구르족을 태운 차량은 심하게 검문하는 것 같았다. 내가 위구르족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았다. 저러면 더 시위를 하게 될 텐



사진 3. 우루무치 공항

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두의 문화가 다를 터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따반칭 풍력 발전소 주차장에 도착한 일행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둘째로 하고 모두 들뜬 기분이었다. 이곳 저 곳을 향하여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하였다. 우루무치의 악몽은 다 잊어가는 듯하다. 당연히 그래야만 답사가 즐거울 것이다. 가는 길의 좌우로는 천산이 길게



사진 4. 따반칭 풍력발전 단지

뻗어 있다. 즉, 우리는 천산 협곡의 하나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런 협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권교수님은 해석하였다. 그럴 것이다. 협곡은 당연히 바람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는 바람이 아주 강하다. 게다가 주변의 높은 설산과 평지의 큰 기온 차이가 큰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다. 따반칭 풍력 발전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2년 전 이곳을 지날 때 염호를 카메라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곧 염호가 나타났다. 다행히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 주었다. 조명이나 거리 등이 아쉽기는 했지만, 남의 차를 타고 내 맘에 맞는 구도와 조명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는가? 아쉬운 대로 염호를 카메라에 담았다. 마치 멀리이지만 소금을 쌓아놓기도 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은 9시를 넘겼다. 그래도 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송광수씨가 준비한 과일로 배를 요기하면서 투루판으로 계속 달렸다. 2년 전에는 반대로 달려서 몰랐었는데, 내리막이 꽤나 심하였다. 우루무치가 해발 1,000m 가까이 위치하지만, 어느 책을 보니 투루판이 -30m라 하니 당연히 심한 내리막일 수밖에. 염호를 지나 내리막으로 접어드니 거의 오르막이 없어 보였다.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는 화장실을 찾은 일행이 드디어 중국임을 실감하고 돌아왔다. 사실 지난 번 겪었던 화장실 보단 더 나아 보이는데도.



사진 5. 염호와 소금

쿠얼러로 가는 길과 투루판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지나니 해가 기운 모양이다. 빠르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참 이상하게도 기사는 불을 키지 않았다. 다른

차도 역시 그랬다. 좀 두려울 만큼이나. 2년 전과 다름없이 그 길에는 강풍이 불어댔다. 차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 강풍을 이용하려는 듯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되고 있었다. 달리는 길의 오른쪽으로 멀리 투루판 역의 불빛이 가물거렸다. 투루판 역은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철도역이다. 시내에서 역까지는 약 40km 떨어져 있다. 투루판이 고도가 주변보다 심하게 낮아서 기차가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에 역을 만든 것이다. 역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를 타고도 1시간가량 가야 한다. 오른쪽으로는 투루판의 불빛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럴 무렵, 차를 세웠다. 검문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앞에 달려가던 위구르족을 태운 버스는 다시 심하게 검문을 당하는 듯하였다. 그 버스는 우루무치 검문소(요금소)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우리와 다시 만났으니 말이다. 점차 도시로 접어들니 공간이 곳곳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일행들에게는 잊어가던 우루무치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나니 자정에 가까웠다.